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 오홍배 대상

호반건설 그룹의 남도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20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전'에서 오홍배 작가가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권선영 작가, 선정 작가상에는 김 윤, 김춘재, 엄재형, 이상섭, 조혜진 작가가 각각 선정됐다.

남도문화재단은 최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시상식을 갖고, 같은 장소에서 '오늘이 내일에게-위로하는 풍경'이라는 주제로 6일까지 전시를 선보인다.

대상을 수상한 오홍배 작가는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아직 배울 것이 많은데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며 노력하는 작가가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오 작가의 작품 'to see, to be seen'은 화폭 안에 말라비틀어진 꽃을 불러와 기표화(signifiant) 함으로써 마른 꽃의 기존 의미를

'to see, to be seen' ...우수상은 권선영 작가

남도문화재단, 오늘까지 서울 인사아트 전시

과포함되고 되풀이 새로운 의미를 제기한다. '마른 꽃'이라는 주검과 부재의 기표는 그의 회화에서 '또 다른 생명의 존재'를 부여하는 실체가 된다.

오 작가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개인전이 지원된다. 우수상에는 1,000만원, 선정 작가상에는 각 300만원 등 총 4,5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2020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은 지난 2월부터 1개월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았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난해 대비 약 73% 증가한 615명이 응모해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

다. 심사를 맡은 김미진 심사위원장(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은 "올해는 출품작의 주제에 걸맞은 재료와 기법으로 완성도를 높였는지를 중요하게 봤는데, 기량이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접수돼 심사 과정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무척 어려웠다"며 "수상한 작가들이 자신만의 장르와 표현 방법으로 완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에는 운주봉 남도문화재단 이사장, 김미진 심사위원장, 수상 작가 등 10여명이 참석했

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 가운데 간소화해 진행됐다.

수상자들의 출품작은 6일까지 인사아트에서 전시되고, 6일부터는 남도문화재단(www.namdocf.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를 이어간다.

남도문화재단은 지난 2013년 설립됐으며,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을 비롯해 문화예술 지원 사업, 예술인재 육성, 전시 활동 등 문화예술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남도문화재단 관계자는 "매년 응모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고, 올해도 청년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창작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모전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수 기자



대상 수상작 오홍배 'to see, to be seen'.



'잃어버린 70년'

다시 보는 6·25전쟁

다산미술관, 김현송 '잃어버린 70년' 전

화순 다산미술관(관장 이정남)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의미의 6·25전쟁과 관련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1층 기획전실에서 열리는 전시는 '다산미술관 2020년 전시공간 작가 지원' 공모에 선정된 김현송 작가의 전시회로, 미술관 기획초대전의 일

환으로 추진된다.

전시 주제는 '잃어버린 70년'이다. 작가는 그날의 아픔과 전장에서 쓰러져간 젊은 군인들의 생생한 현장을 작품으로 재해석했다.

김현송 작가는 전쟁의 참혹함과 역사의 슬픔을 돌아보기 위해 실제 사용되다 공매되어 사라져 가는 전쟁 용품들을 어느

수집가로부터 인수했다.

약 300여점의 녹슬고 퇴색된 무기들은 조합하고 재해석돼 17점의 설치작품으로 탄생했다. 작품들은 6·25전쟁 70주년의 기나긴 시간들을 기억 속에 새겨져 되살린다.

한편 전시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도 마련된다.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 및 실제 무기를 수집할 당시의 실감 나고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세계와 겨룰 성악 무대 도전하세요

광주문화재단, 13~23일 '광주성악콩쿠르' 참가 접수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이 '2020 광주성악콩쿠르'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정상급 성악가들을 배출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콩쿠르로 자리잡고 있는 광주성악콩쿠르는 광주 출신이자 중국 3대 혁명음악가로 꼽히는 정윤성의 음악을 기리는 동시에 한국을 대표할 성악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정윤성음악축제'의 하나로 열리고 있다.

광주성악콩쿠르는 세계 최고 오페라단

으로 손꼽히는 오스트리아 국립오페라극장 전속 성악가로 활동한 심인성, 유럽에서 '한국인 칼라프'라는 극찬을 받은 이정원 등 다양한 성악 스타들을 배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JTBC '팬텀싱어3'의 결승 진출자인 길병민, 박기훈, 김민석, 정민성 등도 광주성악콩쿠르에서 신진 성악 유망주로 미리 눈도장을 받은 수상자들이다.

이번 콩쿠르는 성악 분야 최고 전문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입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선 입상자들에게는

'2020광주성악콩쿠르 입상자 콘서트' 공연 기회도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만 20세 이상 만 35세 이하 성악을 전공한 내국인이며,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광주성악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경연은 내달 1일 1차 예선을 시작으로 8일 2차 예선, 15일 본선을 진행한다. 21일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상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성악콩쿠르 홈페이지(http://vmc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안숙선 명창 60년 소리인생 한눈에

남원시, 광한루원 인근 국악전시관 개관

이 시대 최고 소리꾼인 안숙선 명창의 60여년 소리 인생이 오롯이 담긴 전시관이 그의 고향 전북 남원에 세워졌다. 남원시는 안 명창의 소리 인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악 전문 전시관인 '안숙선 명창의 여정'을 3일 개관했다.

이 시설은 45억원이 투입돼 남원 광한루원 인근 전통한옥 체험단지 예촌 내

5,832㎡ 부지에 전시관과 전수체험관 등 2개 동으로 건립됐다.

전시관에서는 안 명창이 무대에서 사용한 공연 의상, 악기, 소품, 작품 대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안 명창은 "평생을 소리와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고향에서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줘 더없이 영광스럽다"며 "개인



지난 3일 개관한 남원 국악 전문 전시관 '안숙선 명창의 여정'.

전시관을 넘어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국악의 명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6445-9370	함평지사	010-3773-2522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4154-8277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5431-4006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666-5888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234 광주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 T. 061-743-4200 / F. 743-4202